



황성복 선생

황성복 선생은 1918년 8월 15일에
원흥변강 그로테코브구역 자유촌에서 출생하시
였다. 향촌에서 초급을 마감한후 블라지워스프코
시에 가서 사대에 속한 로동학원에 입학하여
3년간 수료한다음 모스크바에 있는 군사학원
에 입학하여 1938년에 졸업하였다. 졸업 당시
군사 칭호는 중위였으며, 졸업생으로 파견되어

정규 복대에 초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몇달
 지나지 않아 원릉에서 한 언도를 강제 어루하여 1937
 년에 중앙아시아로 옮겨 유과 관련하여 황선생도 군대
 에서 제대 식혀 중앙으로 파견하였다. 중앙아시아
 프베크 공화국 싸아르간은 시에 도착한 황선생은
 싸아르간은 시 사대에 입학하였다. 동사대라
 페르가나시 로 어루하여 간과 관련하여 선생도
 페르가나시에 가서 1942년에 사대를 마친하였다.
 사대 졸업후 대학 파견에 따라 선생은 다브
 겐트주 상철칙구역에 고종학교 교장으로 1942
 -1945년까지 일하시었다.

1945년 8월에 북-일 전쟁이 시작되자 소련군에
 소모되어 소련군 제 25군단 소속으로 군사총영관으로
 만주, 북한 해방전후에 참전하였다. 1945년 9월에
 평양에 주둔한 소련군 25군단 사령부 총영관으로
 1948년까지 복무하고, 북한에서 소련어 설치하자
 소련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북한 연변군에 제적
 되어 연변군 제 1사에 군사총교를 총영관으로
 근무하시다가 1948년 말북의 평양 군사령의
 학원 부원장으로 근무하시다가 1949년 북의 조선
 연변군 최고사령부 군사교육회 부회장으로 계시다가
 1950년에 동족 상잔이 시작되자 1950년 6월
 25일북의 연변군 제 1군단 참모장으로 복무하시다가
 최고사령부에 송환되어 일반복합으로 직속이 계시

다가 최고사령부 군사교육처 처장 직위에서 열심히
 일하시였다. 1954년부터 1956년에 소련에 귀
 환할 당시까지 만경대 유가족 학원 원장으로
 일하시였다. 조선인군 군사학교 - 중장, 소련군대
 제대 당시 소련군 군사학교 - 중좌. 소련에 귀환
 하신후 모스크바에서 제대 후퇴하시던 중 아시아
 다스 권총에 포착하여 극도로 부끄러운 사행으로 보
 장 받고 연노름 물레로 해결받았다. 그러나 아팠
 원기 성대 하신 황선생은 집에 앉아 쉬고 있을 때
 다스 권총시 언변위원회 주책관리부 제형에서 계속
 1960년로 날까지 열심히 근무하시였다.

황선생은 1968년에 법적 연금생활을 시작하여 가리고
 현재 다스 권총시에서 목사 대하게 누다운 과분
 들 거느리고 행복한 생활로 하시고 있다.

황선생은 소련 조국 전쟁 훈장 1급 수여
 조국기 훈장 2급 "
 조선 자위 독립훈장 2급 "
 기타 소련 및 조선
 12개달 90여개 수여.

다스 권총에서 광복회
 임경영